

천재(天災), 인재(人災) 등으로 '식량안보' 벼랑 끝에 서



김 광기 교수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인간에게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입을 것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거처할 집이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천박한 대답이 있느냐고 타박부터 하려드는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필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도 늦지 않으니 말이다.

●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할 '식(食)

필자가 즐겨 보는 몇몇 TV 프로그램 중 <1박2일>이란 것이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멤버들이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해 내는 강행군 때문에 몸이 몹시 지쳐 있을 때조차도 구성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안달하는 것이 바로 저녁 복불복 게임이다. 이를 두고 어떤 시청자들은 평소에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이들이 하루 방송 녹화를 하면서 그렇게 먹을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멤버들의 그런 모습이 단순히 '쇼' 거나 혹은 많이 '오버' 한 행동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필자에게만큼은 그들이 먹는 것에 연연해하는 그 모습이 진정성으로 다가온다.

방송녹화를 하는 동안 사적으로 돈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예인의 얼굴을 팔고 먹을 것을 거저 구하는 것도 금지된 상황에서 녹화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가장 절실한 것은 허기를 채울 먹거리부터 일단 챙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때 몸에 걸칠 옷이나 잠자리 등은 단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배고플 때 먹거리 앞에서 나이나 학력, 체통 그리고 염치 등은 가리거나 차릴 것이 못된다. 우선은 목구멍에 뭔가가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나? 그렇기에 극한 상황까지 출연자들을 몰아대는 <1박2일>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녁 복불복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지 <1박2일> 멤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의 실마리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농부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소득국가만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글로벌 식량대란’이란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안이하게 여겼다가는 큰코다친다. 해서 식량자급률 27%의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라는 우리의 현재의 성적표를 들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생과사의 기로에서 있다.

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때는 2008년, 장소는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이다. 연구년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이다. 이 시기에 필자는 완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쌀파동이였다. 당시 쌀 가격이 하루 사이에 무려 30%나 급등할만큼 파동이 일었다. 따라서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미국에서 쌀을 구할 길이 없어 한국교포를 비롯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몸소 겪었다.

여기서 필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단순한 관용어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아니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오죽했으면 필자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혔 정도였을까. 당시에 필자는 아내와 아이 셋을 둔 가장으로서 쌀을 구하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었다. 왜냐 하면 돈이 있어도 매장에서 쌀을 구할 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평소에 한국식품점뿐만 아니라 웬만한 일반매장에서도 쉽사리 구할 수 있었던 쌀이 거의 모든 매장에서 사라졌을 때, 그리고 대형마트에 몇 포의 쌀이 나오기가 무섭게 새벽같이 배급표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집에 있던 쌀자루에서 쌀이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때 필자의 입은 비쩍 타들어 가기 시작했고 마음은 쌀이 떨어지는 만약의 사태를 염려하는 탓에 조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런 심정은 비단 필자 혼자만의 심정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 때 진정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때 비로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거리, 즉 식량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식량의 중요성과 그동안 그것을 경시했던 것에 대오각성하였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살 수 있는 식량이 없다면 그 돈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돈을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일상생활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옷도 아니요, 집도 절도 아닌 바로 식량이란 사실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필자는 이 식량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식량주권을 사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의 자급률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힘주어 주장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세계는 또 다시 2008년에 겪었던 식량파동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식량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작년 4월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릭이 첫 운을 댔는데 그가 식량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을 내뱉자마자 무섭게 그 경고가 현실화 되었다. 실제로 2011년 12월 말 현재 5년 전인 2006년보다 식량가격은 약 68% 치솟았으며, 2012년 7월 현재도 세계 곡물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나 꺾충 뛰었다. 옥수수과 밀 가격은 각각 25%씩 상승했고 대두는 17% 상승해서 그 수치로 보면 이미 사상최고치를 자랑했던 2008년도의 곡물가격을 일찌감치 따라 잡았다.

● '식량위기' 천재·인재의 합작품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 식량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천재(天災)를 들 수 있다. 가뭄과 홍수 등의 이상기후를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2012년 올 한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전 세계 식량 공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곡창지역에서의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흉작은 전 세계 식량가격에 직격탄을 날리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전 세계 옥수수의 40%를 생산하는 미국이 50여년만의 가뭄으로 최악의 소출을 기록하고 있고, 앞친 데 덩친 격으로 또 다른 곡창지역으로 꼽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밀 소출 감소로 식량가격 상승에 한 몫을 더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재(人災)로 인한 식량가격의 상승이다. 그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투기다. 이른바 글로벌 투기 세력들인 투자은행, 헤지펀드, 심지어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벌이는 악랄한 투기 놀음에 국제 식량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투기 놀음에 중요한 수단이 바로 파생금융상품이다. 들쭉날쭉한 곡물가격 시장의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선물시장을 이익추구의 도박장으로 만들어 버린 이들이 바로 이 글로벌 투기세력들이며 이들의 농간에 의해 국제 곡물가격은 교란되고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사이 이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투기 세력들은 2009년 이래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면적에 해당하는 땅을 헐값으로 마구 사들였으며 그곳에 곡물창고까지 짓는 등, 곡물가격 인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국제 곡물가격의 추가 상승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Oxfam)은 지난 10월 과거 10년간 전 세계에서 매각된 토지는 약 10억 명분의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며 세계은행의 농지투자의 일시적 동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왜냐하면 세계은행 산하 투자금융기관인 IFC를 통한 농업부문의 투자가 지난 10년간 약 200% 증가했으며, 그 중 농지투자의 약 60%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국가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매각으로 해당 토지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70%는 자체 소비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해야만 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죽 썬서 개 주는 꼴이다. 이미 토지가 외국인에게 매각된 이상, 거기서 일해 생산해낸 식량의 자체 소비는 엄두도 못 내고

배가 끓어도 어찌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재 저개발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러한 글로벌 투기 세력들의 손아귀에서 국제 식량가격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니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초대형 곡물 메이저 회사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카길, ADM, 벙기, LDC 등과 같은 초대형 곡물 회사들이 독과점을 통해 국제 곡물가격은 교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4개 초대형 곡물 메이저 회사가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약 80%, 그리고 곡물 저장시설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들 회사가 벌이는 수급 조절에 따라 전 세계 식량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연료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중부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 자동차 기름이 유독 저렴한 것을 발견한다. 다름 아닌 그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에탄올이 섞인 기름을 주유하면 그렇다. 이 바이오에탄올이라는 것이 바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것이다. 2005년부터 미국은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을 첨가하도록 조치했다.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치다. 그러나 이것이 작금의 식량 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가운데 식량으로 소비되는 것은 고작 11%에 불과하고, 39%는 연료로, 37%는 가축용 사료로 쓰이며, 나머지 13%가 수출된다. 식량 가격이 올라 저소득국가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될 위중한 미당에 그 소중한 식량이 연료로 쓰인다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를 보다 못해, UN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미국에 바이오연료 조치를 식량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도이니 식량가격 상승에 이것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생사기로에 선 대한민국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해 세계 곡물가격은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를 상승하게 하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의 상승은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유제품을 비롯해 제반 관련 제품들의 가격을 덩달아 올리기 때문이다. 즉 곡물가격의 상승은 물가상승의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저소득국가에서는 심각한 사회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른바 '아랍의 봄' 시위가 그 예이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여졌지만 속내는 치솟는 식량가격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렇듯,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농부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소득국가만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글로벌 식량대란'이란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안이하게 여겼다가는 큰 코다친다. 해서 식량자급률 27%의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라는 우리의 현재의 성적표를 들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우리 자신과 후손의 목구멍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㉞